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제 42 - 3 호

2025년 1월 19일

- 다음 주일 오후 2시 공동체운영위원회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 젊은이사랑방 공동체생활이 25일(토)~27일(월)까지 사랑방공동체에
서 있습니다.
- 21일(화) 김영화 권사님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최신혜 · 조향민 집사 가정 (감사)

임미숙 · 김영상 집사 가정 (감사)

우창숙 · 진용용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박태규 · 전향옥 집사 (생일 감사)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의 권리와 의무

얼마 전에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발신자가 의정부 지방법원 법원이었습니다. 처음 받아 보는 법원의 서류에 걱정하면서 내용물을 살펴보니 재판에 배심원으로 선택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참여 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 기일 통지서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은 투표권이 국민 모두에게 있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은 공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어겨서 재판하는 경우에도 배심원들을 부르고, 그때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가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편물을 받으면서 한국에도 있었는데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용 중에 눈여겨 보였던 것은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25년 1월 7일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 LA지역에서 일어난 산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화재 중 최대 규모로 1월 18일 기준으로 11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망자수는 27명, 파괴된 구조물이 총 7555채, 이중 약 58%인 4356채가 주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화재는 40년 내에 캘리포니아 주의 도시지역을 가장 크게 태운 화재로 분석했습니다.

이때 미주 동포들이 최근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해 LA 한인회 중심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산불 방생으로 인해 임시대피소에서 머무는 시민을 돕기 위해 이불과 담요 등 구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산불이 걷잡

을 수 없이 번져 피해가 커지자 LA한인회 상인공회의소와 함께 마스크와 이불 등 구호품 모집에 나서도 자선단체 굿월을 통해 대피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기부하는 일도 있는데 이재민들에게 각종 의류를 전달하고 구조대원에게 무료 음식을 제공하면서 피해 복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가면 한국인들의 커뮤니티인 한인회가 있습니다. 타지에서 한국인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은 한인교회입니다. 한인교회는 외국 생활의 초반생활과 이민자들이 쉽게 찾아가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인회는 한국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LA산불을 돕는 한인회는 미국 정부나 시의 지원보다도 빠르고 실질적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구성원으로써 소속감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가 그 그룹에 속해 있음을 알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사랑방공동체 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방공동체, 땅에 있는 하늘나라의 구성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 좋겠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최기찬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

<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447 488 / 312

기도 : 이용신 장로

성경 : 창세기 15장

제목 :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다

1-6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해석: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이익, 유익이 아니라 장차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

적용: 현실보다는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자.

7-11, 17-21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다.

해석: 하나님과의 약속은 예배로 이루어진다.

적용: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신다.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자.

12-16(삽입 부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

해석: 하나님과의 계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약속이다.

적용: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나의 문어 선생님’이란 영화 보셨어요? 2021년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받은 영화라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다큐멘터리 감독이며 박물학자이기도 한 크레이그 포스터(Craig Foster)가 제작한 영화인데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어요. 전부터 시간이 가면 이 영화를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자꾸 뒤로 밀리는 목록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여유 있게 영화 한 편을 볼 시간이 그리 자주 나지 않는 탓에 보고 싶은 영화의 목록만 갖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 밤에 시간이 딱 났고, 드디어 이 영화를 봤습니다. 90분의 상영 시간 내내 바닷속 다시마 숲으로 쪽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영화의 촬영 장소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끝자락,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 폭풍 치듯 파도가 맞부딪히는 곳이에요. ‘폭풍의 곳’이라는 유명한 곳인데, 지금은 ‘희망봉’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이라도 이 영화의 배경을 상상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짐작이 갈 것 같네요.

많은 것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그중에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이 영화의 등장인물인 크레이그 포스터는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을 때 자신이 어렸을 때 시간을 보냈던 이 바다를 찾아왔어요. 1년 정도 여기서 수영하며 자유를 느끼고 평안을 되찾게 되는데요. 우연히 문어 한 마리를 만나 매일 관찰하고 교감하게 되는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게 됩니다.

그가 만난 문어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머리가 좋고, 용감하며, 참을성이 많고, 장난기가 있으며, 삶의 여유를 즐길 줄 알고, 모성애가 깊으며, 정을 나눌 줄 알고, 무엇보다 자기 삶의 자리를 잘 지키는 생명체였습니다. 그 문어에게 점점 빠져든 크레이그는 3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날마다 문어를 만나러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그 존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어의 마지막 시간까지 묵묵히 지켜본 그는 분명, 그 문어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것! 그래서 저는 올해, 제 옆에 계신 여러분들을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더 사랑하렵니다.

따뜻한사랑방 이재신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이사야 40 : 10-11 인도자
15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복음 3 : 17 인도자
503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고린도전서 13 : 1-13 설교자
비 준비하시니(20장) 비음사랑방
“ 사랑은 오래참고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218 다함께
410(3)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이용신 진정행 / 봉헌위원 : 한미선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랑은 오래참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모든 언어를 통달하고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거나 진정으로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지게 되면 그 가치가 없어집니다.

변질된 사랑. 이토록 중요한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는 사랑이 변질되고 왜곡 되었습니다. 사랑조차 자기중심적이 되고 소유하려고 하며 조건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헌신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시작하고 쉽게 끝내버립니다. 미성숙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참고. 본문에서 사랑은 모두 동사들의 집합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여 인내로 마치게 됩니다. 사랑은 상대를 참아내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이윤순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어린이학교 졸업여행 소식 >

안녕하세요, 곧 멧쟁이학교에 입학하는 권도현입니다. 저희는 12일 밤에는 학교에서 모여서 자고, 13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마리나베이샌즈를 보고 멀라이언도 봤습니다. 14일에는 시티투어 버스, 플라이어, 리버크루즈 등을 경험했습니다. 15일에는 이스트코스트에서 자전거를 타고, 아이언몰과 차이나타운에서 쇼핑도 했습니다. 16일에는 제가 가이드 한 날인데 숙소 이동을 하고 동물원도 가고 사테라는 꼬치구이도 먹었습니다. 17일에는 루지도 타고 해리포터 체험관과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18일 오늘, 지금은 베트남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는 싱가포르 갈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왔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라서 즐겁습니다. 저를 이렇게 보내주신 부모님, 매번 기도해주시는 사랑방공동체 분들, 그리고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권도현

이번 졸업여행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했다. 우리 학년이 10일 동안 선생님 도움 없이 맡은 날마다 안내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행을 시작했다. 첫 날은 다니, 그리고 은율, 수민, 도현, 아영이까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척척 잘하는 모습을 보고 어린이학교는 이런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너무 느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해결해가는 친구들이 멋졌다. 아영이까지 끝나고 오늘 내 차례가 되었다. 아직 많은 것을 하진 않았지만 주님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여행을 마치고 싶다. / 김민지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졸업여행이다. 이번 졸업여행으로 많은 걸 배우고 있다. 내가 혼자 외국에서 주문해보는 것도, 내가 친구와 가족 선물을 외국에서 혼자 사는 것도 배운 것 같다. 친구들과의 여행이 재밌고, 우리가 길 찾는 것도 너무 즐거웠다. 전부터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가서 너무 즐거웠다. 유니버셜 기프트샵에서 나에게 주는 선물도 샀다 유니버셜은 다음에 또 가고 싶다. 남은 졸업여행 기간도 즐겁게 보내면 좋겠다. / 신새나

나는 졸업여행이 처음 하는 해외여행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설렘다. 그렇지만 새벽에 일어나 출발하니 졸렸다. 그래도 기대되었던 것 같다. 여행을 오니 못해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내가 안

내를 맡았던 날 이스트코스트라는 곳에서 자전거를 탔는데, 그 곳에서 자전거를 타는 일정이 있어서 여행 오기 전에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워서 왔고 잘 탈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그 날 안내를 무사히 마쳐서 뿌듯했다. 앞으로 남은 베트남 여행도 기대된다. / 이수민

졸업여행을 왔다. 어린이학교 여행. 마지막 여행만큼 열심히 지내고 있다. 가끔씩 다투고 힘들 때가 있어도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도와주니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 싱가포르에 온 것 자체가 좋다. 특히 좋은 친구들과 짱 좋은 선생님들과 같이 온 것이 좋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좋은 곳에 보내주신 엄마 아빠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도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 이은율

안녕하세요, 사랑방 식구들, 저는 아영이입니다. 저는 지금 싱가포르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고, 현재까지의 졸업여행 소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이 여행이 아주 소중한합니다. 제 12년지기 친구 민지와 함께 하는 마지막 어린이 여행이기도 하고 어린이에서 가는 마지막 여행이라 더 소중한합니다. 그래서 더 즐겁게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선생님과도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이번 여행이 마지막이라 아쉽지만 남은 기간도 잘 지내겠습니다. 나중에 봐요~! / 정아영

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곳에 와서 제가 모르던 이 나라의 문화와 생활 등 여러 가지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친구들과 선생님께서 많은 힘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를 위해 애써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남은 여행도 잘 하고 돌아갈게요. 사랑해요. / 최다니

저는 졸업여행이 그냥 재밌게 놀기만 하는 여행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라고요. 아주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재밌고 내가 맡은 날에 열심히 가이드 해야겠다는 의무감이 푹푹 뭉쳐지는, 아주 저에게는 꼭 필요한 여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벌써 자기 맡은 날을 아주 매끄럽게 잘 해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잘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해주세요. / 최본

<일기장>

사랑방에서 생활공동체로 살며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내 첫 번째 답은 주보 글쓰기다. 마음에 없는 말은 어렵지 않지만, 글은 영 쉽지 않다. 소리와 달리 흠어지지 않는 활자의 무게를 알기에. 어떤 글을 써야 할까 늦은 시간까지 고민이 이어진다. 한참 딴 짓을 하다가 힌트를 얻고자 일기장을 펼쳤다. 내 일기에는 물음표가 많다. 어떤 날의 물음표는 외로움이었다. 몇 페이지 뒤, 누군가 답을 주었다. 외로 느끼는 나다음은 용기로 얻은 특별함이라고.

다른 날의 공허함은 말줄임표였다. 공허함은 곧 맛을 잃은 건조한 삶으로 이끌었다. 공연, 게임, 독서, 사람, 소비, 영화 등등.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처방이 필요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답을 구해도 나아지지 않았다. 사실 잘 들리지도 않았다. 홀로 빈 방에서 눈을 감고 물었다. 무엇도 바라지 않고 헌신으로 섬기며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은 눈앞에 떠올랐다. 일기에 찍어내는 점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괴로운 것은 기대 때문이었다. 바라는 마음은 늘 나를 상하게 했는데, 나는 또 바랐다. 눈을 뜨지 못하고 많이 울었다.

0, 1, 2, 3, 5는 학생으로 4, 6, 7, 8은 교사로 살았다. 충실도와 별개로, 돌아보니 온통 기독교교육이다. 대학 동기들은 만날 때마다 니가 전공을 살릴 줄은 몰랐다면, 이해타산적인 사람이 계산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놀란다. 나도 놀란다. 고등학생 때, 진로를 고민하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꿈꾸며 기도했다. 지금의 삶보다 더 알맞은 응답이 있을까. 정말 놀란다.

일기를 주욱 읽어 본다. 말줄임표나 물음표보다 많은 사랑과 감사를 발견한다. 또, 현재 고민에 대한 답을 과거 기록에서 얻는다. 다시 0을 앞둔 9가 되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려움을 이기고 머리를 담가야만 물에 뜨는, 숨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배영이 좋다. (2021년 일기 중)'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성아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최기찬 전도사

찬 송 : 320장, 364장

성 경 : 갈라디아서 3장 7-14절

말 씬 : 하나님과의 약속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미국 캘리포니아 화재를 위해>
LA 8일 째 대규모 동시 다발적 산불이 일어나 현재 주민 8만 8000명에게는 대피명령이 내려졌으며, 8만 4000명에게는 대피 준비 경고가 발령된 상태다. 현재까지 보고된 사망자 수는 전날과 같은 24명이다. 실종신고는 24명으로 1명 추가됐다. 현재까지 소실된 건물은 1만 2300여채에 달한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물만골 공동체>
물만골교회는 노숙생활을 경험한 분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여 세우기 위하여, 2006년 11월 26일에 연산동 물만골마을에서 시작되어, 공동체 가족들을 양육하여 소외된 이웃을 함께 섬기는 사역자로 성장시키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어린이학교 졸업여행 중 ~23일 / 싱가포르, 베트남(다낭)
 - 2) 사회의 안정을 위해
 - 3) 추워진 날씨, 질병으로 치료, 회복중이신 분들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눈으로 가득한 마당을 보면서 겨울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무림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취입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주변을 정리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해외에 나가 있는 어린이 선생님들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식구, 아프신 분들을 위한 기도는 매일의 기도자리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구합니다. < 장영미 전도사 >